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생명성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 현 수

# 생명성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 현 수

# 인 준 서

이현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한 만 영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이 춘 옥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박 영 근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예술은 인간의 삶과 현실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는 이렇듯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의 끊임없는 변화와 조화 속에서 감동을 받아 예술의 모티브로 재창조하고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여 왔다. 이에 본인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연에서 21세기 변화하는 생명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서 본인의 작업을 시작하였다.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 인류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강령에서처럼,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하여, 자연은 테크놀러지의 횡포 앞에 속수무책인 채로 던져지게 되었다. 반면 과학은 권력인 동시에 구원의 방편이 된 것이다. 이러한 기계론적인 생명관은 세포속의 DNA의 구조가 밝혀지고, DNA를 자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유전자 조작이 생겼고 이로 인해 유전자 변형식품이 생기는 결과를 낳았다.

본인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 주위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중 제1호인 토마토를 중심소재로 그 외 여러 열매들의 단면을 표현하였다. 열매들의 단면을 선택한 이유는 표면(Surface)보다 단면(Section)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마치 오랜 세월 지각변동으로 형성된 지층의 단면을 통하여 지구의 진화 역사를 알 수 있듯이, 생명의 진화 역사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자연의 섭리 및 생명의 진화 역사를 의미하는 열매의 단면을 변형함으로써, 각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 생명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정체성 상실을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품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

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생명성 표현 연구’라는 주제로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연구한 것으로 총3장으로 구성되어진다.

**제1장** 서론에서는 예술과 21세기 생명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과일의 단면 이미지 연구로 다양한 구성과 표현을 시도한 본인의 작품을 내용적 분석과 조형적 분석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고찰하였다.

내용적 분석에는 작품 주제와 관련하여, 생명공학의 발달과 그로 인한 생명관의 변천과 예술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Originality 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작품 제작 동기와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소재선택의 의미로 ‘자연’과 ‘열매의 상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조형적 분석에는 생명의 상실을 ‘이미지 확대와 변형’으로 모호하고 부정확한 이미지로 표현하였음을 설명하고, 화려한 화면구성을 이룬 작품의 ‘색채변화와 시리즈’로 유동적이 느낌과, 인위적인 조작의 의미를 강조 하고자하였으며, ‘표현기법’에 있어서 이미지를 흐리게 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14점의 작품들을 개별적 내용과 더불어 조형적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며 본인 작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4
1. 내용적 분석 .....	4
1) 생명의 의미 .....	4
① 21세기 생명공학 .....	5
② 생명관의 변천과 미술 .....	10
2) 작품의 제작 동기 및 주제 .....	12
① 자연 .....	13
② 열매의 상징 .....	15
2. 조형적 분석 .....	17
1) 이미지 확대와 변형 .....	17
2) 색채변화와 시리즈 .....	19
3) 표현기법 .....	21
3. 작품 분석 .....	23
III. 결론 .....	42
참고사진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No title**, 73 × 91cm, Oil on canvas, 2003
- [작품 2] **No title**, 73 × 91cm, Oil on canvas, 2003
- [작품 3] **Super bean**, 145.5 × 112cm, Oil on canvas, 2004
- [작품 4] **into**, 53 × 45cm, Oil on canvas, 2004
- [작품 5] **lift**, 53 × 45cm, Oil on canvas, 2004
- [작품 6] **carry**, 53 × 45cm, Oil on canvas, 2004
- [작품 7] **overpowered**, 162 × 112cm, Oil on canvas, 2004
- [작품 8] **Blue tomato**, 122 × 122cm, Oil on canvas, 2004
- [작품 9] **a green pepper**, 53 × 46cm, Oil on canvas, 2004
- [작품 10] **Tomato**, 상단 122 × 122cm, Oil on canvas, 2005  
하단 120 × 120cm, Oil on canvas, 2007
- [작품 11] **A fluorescent kiwi**, 각 73 × 90cm, Oil on canvas, 2007
- [작품 12] **blood**, 73 × 60cm, Oil on canvas, 2008
- [작품 13] **Emerald Green Orange**, 91 × 116.5cm, Oil on canvas, 2005
- [작품 14] **festival of the extinction**, 97 × 130cm, Oil on canvas, 2008

## I. 서 론

예술은 자연과 일상적 생활의 외형적 형상을 받아들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내적 가치를 다시 표현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며 단순히 한 개인의 창작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현실사회의 산물로 이 사회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활동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은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열망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하여 미의 대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자연의 외적인 곳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대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승화시켜 조형 예술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sup>

본인은 현실인식의 상당 부분 중 불안한 측면들인 사회적 측면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빈부의 격차 등과 인간적 상황에서의 인간소외, 물질만능주의, 탈정신화 등 여러 가지 비판적 관점 중에서 인간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환경과 생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여 구체화 시켰다.

2007년 7월 4일 KBS 1TV가 ‘환경스페셜’이란 프로그램에서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식품’이란 타이틀로 유전자조작과 그 따른 유전자변형식품이 축복보다는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외에도 많은 책들<sup>2)3)4)</sup>과 기사들로 이제는 누구나 유전자 변형 식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본인 또한 여러 가지 기사와, 프로를 통해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

1) H.리이드, 1931,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주일 역, 을유출판사, 1969, p.228

2) 권영근, ‘위험한 미래’, 당대출판사, 2000

3) 박병상, ‘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 책세상, 2002

4) 매완 호, ‘나쁜 과학’, 이해경 역, 당대출판사, 2005

생명의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생명과 결부되어있는 생명공학으로 인한 생태파괴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인체에 가져다주는 악영향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규모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의 위기는 이제 총체적 위기로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다.

현실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현실 자체에 대하여 다양하고 유기체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면과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또한 개인의 상황과 경험에 의해서도 변화된다. 이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생명공학의 발달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독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 생명성의 위기와, 인류 현대 사회의 정체성 상실을 작업화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과일의 단면 이미지 연구로 ‘생명성 표현 연구’란 주제 아래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인은 2003년에서 2008년 동안에 걸쳐 다양한 구성과 표현을 시도한 본인의 작품을 내용적 분석과 조형적 분석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고찰하였다.

내용적 분석에는 작품 주제와 관련하여, 생명의 의미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21세기 생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유전자변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생명공학으로 인한 생태파괴의 심각성이 국가, 사회만의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다가옴을 인식하고 이를 작업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였다. 미술에 있어서의 생명관에 대해 알아보고 21세기 자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제작 동기는 자연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서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파괴된 자연질서와 생명성 회복을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작업에서 등장하는 소재는 열매로 이는 자연에서의 열매이기도 하면서 유전자 변형의 열매로 그것이 지닌 상징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자연의 본질과 생명력을 나타내 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열매라는 소재로 차용되었을 뿐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언급하고 인간의 이기로 조작된 생명공학의 부작용은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 옴을 서술하였다.

조형적 분석에는 ‘이미지 확대와 변형’으로 피사체가 실제사물과 다름을 보이고 낯설게 느껴짐으로 21세기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성 상실과 정체성 상실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화려한 화면으로 이미지를 강조하는 ‘색채변화와 시리즈’작품에 대해 강한 이미지전달 효과를 주려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미세한 리듬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표현기법’으로 생명성 상실에 대한 모호한 정체성을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음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점진적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14점의 작품들을 제작 동기와 내용 및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II. 본 론

### 1. 내용적 분석

#### 1) 생명의 의미

생명이란 생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물이 기본적으로 갖는 속성이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란 힘들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이론적인 개념에 근거한 몇 가지 정의가 사용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생물학적, 생화학적, 유전적, 열역학적, 물질 대사적 정의 등이다. 이중 지구에는 가장 단순한 세포에서 복잡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유전학적 정의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유기물질, 행동양식, 구조 등을 복제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모든 정의에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정의란 불가능하며 주로 생명체가 갖는 특성을 통해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다.

‘생명’이란 말에는 인간, 동물의 ‘목숨’외에도 ‘사물이 성립, 유지되는 유일한 힘’, ‘사물의 대단히 중요한 것(본질적인 것)’과 같이 사물의 ‘근본적 힘’, ‘본질’ 등의 뜻도 들어있다. 하지만 생명은 인격이나 사랑처럼 정신활동이 개념 정의가 될 수 없듯이 육체적 생명, 영혼적 생명, 우주적 생명 등에 관점에 따라 범위가 매우 넓어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간단히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생명은 신성하고, 의미 있으며, 가치가 충만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에 관한 이해나 견해는 시공간적으로 달리 생각되지만 현재 생명은 인간의 이기와 욕심으로 날날이 해부당하고 있고, 고귀하고 신비로운 생명은 생

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생명 중심주의 환경 철학에서 자유<sup>5)</sup> 개념은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전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의 자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생명공학과 문제점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도전들이 있어왔다. 그동안 수십억 명이 넘는 인간들이 질병, 기아, 전쟁, 가난 등의 고통과 질곡 속에 사라져 갔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동물도 가지지 못한 창조적인 지혜와 도전들로 이를 극복해 왔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 본래의 인성(人性) 중에서 좋은 측면인 선성(善性)도 키워왔지만, 반면에 인성의 추악한 단면인 악성(惡性)도 강화 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이기와 욕심을 품은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질병, 기아,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는 듯 보였지만 기계론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한 생명조작은 생물체를 하나의 자동 제어계로 보았고 도를 넘어선 이기심에 현재 우리는 우리가 뿌린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생명공학은 우리 생활의 식탁에 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 질병에 강하고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탁월한 농작물을 개발하였고, 제초제에 저항력이 있는 유전자를 접합한 농작물들도 개발하였다. 또한 특정 비타민을 많이 함유한 농작물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농작물도 개발하

---

5) 전통적으로 볼 때, 자유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자유 개념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칭한다. 자유 개념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의 개념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구속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여러 가지 방도들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고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었다. 수박만한 감자, 거대 옥수수 등 농축산물의 수확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품종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이 과연 우리 인류를 기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전자 오염으로 인해 이 지구를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드는 악의 학문이 될 것인지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결코 구세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명공학’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걸음마 단계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미래에 인간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기간 동안 섭취할 경우에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은 증명할 수 없고, 유전자 품종에 의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반박할 수 없다. 유해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나 과학적 검증 방법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은 이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본인은 분자생물학에 기초를 둔 ‘생명공학’의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이 학문 분야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좋아하듯 본인 또한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먹는 즐거움은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토마토를 매우 좋아한다. 밥 대신으로까지 토마토를 즐겨먹는다. 하지만 토마토는 유전자변형식품(GMO)<sup>6)</sup> 제1호다. 처음엔 마냥 신기한 과학처럼 받아들이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땅속에는 감자가 열리고 땅위로는 토마토가 열리게 하는 마법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생산량도 늘릴 수 있으며, 우생학적으로 우위에 있는 유전자들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으로 말이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장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생명에

---

6) 유전자 변형 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

대한 인공적 조작을 가능하게 한 생명공학은 생명, 생물체를 하나의 자동 제어계로 보는 기계론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이는 자연 생태를 위함이 아닌 모두 인간중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이란 넓은 의미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인류에게 보다 더 유용한 물질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한다.

이런 생명공학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인간에게 편의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명공학은 토착지식과 자원을 약탈하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위험한 미래’<sup>7)</sup>를 예고하는 까닭이다. ‘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sup>8)</sup>은 어떤 면으로 살펴보더라도 ‘나쁜 과학’<sup>9)</sup>일 수 밖에 없다고 여러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최초의 유전자 조작식품은 1994년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일명 ‘프레브 세이브(FLAVRSAVR)’ 토마토 이다. 그들은 토마토가 잘 물러 저장기간이 짧고 운송이 어려운 점을 보강하기 위해 토마토 중에서 무르게 만드는 유전자를 찾아내 그 활동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전자인 프레브 세이브를 만들어낸 것이다.

몬산토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종자산업 세계 2위이자 농화학산업 세계 3위인 몬산토(Monsanto)는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에만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조작된 ‘라운드업 레디’라는 콩을 개발하여, 이를 제초제와 한 세트로 같이 농민들에게 팔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몬산토는 종자와 농약 둘 다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터미네이터 기술’, 그리고 자사의 농약

---

7) 권영근 작가가 쓴 책으로 2000년 당대출판사에서 출간.

8) 박병상 작가가 쓴 책으로 2002년 책세상에서 출간.

9) 영국의 Mae-wan ho 작가가 쓴 책으로 2005년 당대출판사에서 출간.

을 뒤집어 써야 만 싹이 트도록 유전자저작하는 ‘트레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씨앗을 거둬들여서 다시 뿌리는 양(전 세계적으로 50%)만큼의 정자 시장을 더 차지함과 동시에 농약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몬산토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다국적 기업인 것이다.

기아로 GMO의 정당성을 옹호한다면 식량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 본다. 극소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곡물을 갖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배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아무리 GMO를 가지고 식량 생산량을 늘린다 할지라도 정작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식량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식량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선 기아로 죽어가고 어느 나라에선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우리는 근본도 알 수 없는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고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들만 좋다고 섭취해왔다.

생명공학은 식품의 맛과 영양을 향상시키거나 특별한 약용성분을 생산하는 GMO로 인하여 인류의 질병 치유와 제3세계 빈민들의 영양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영양역시 빈곤과 결부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빈곤을 치유하지 않는 이상 GMO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니와 빈민들로 하여금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손쉬운 방법인데 굳이 다국적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GMO를 개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성분을 강화한 GMO들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의 절감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처음에는 농약 절감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내성(耐性)이 증대되어 역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강한 제초제로 인하여 자연에게 이로운 곤충들까지 죽이는 결과로 자연의 생태계는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몬산토의 라운드업 콩은 기존 작물보다 농약을 2.5배나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실험결과가 나와 궤변임을 입증하고 있다.<sup>10)</sup>

가장 위험한건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유전자는 종간의 교환 또는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꿀벌의 경우 돌연변이나 기타상호간의 활동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가 다른 종으로 전달된 다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 변형의 결과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높다 하겠다.

그 예로 GM물고기 한 마리가 40세대 내에 물고기 무리 전체를 절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모의실험결과 GMO가 방사능이나 화학물질보다 더 무서운 생태파괴 무기인 것이다.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유전공학의 발전이지만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조금씩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유전자 변형 식물의 등장이 잡초를 뽑는 노동과 품종개량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소중한 유전자원인 다양한 야생종을 절멸시켜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특허권을 확보한 뒤 인류의 공공재산인 종자를 사유화, 독점화 해 가외의 막대한 이득까지 챙기고 있다.

‘희망의 밥상’이란 책의 내용 중에는 동물들조차 본능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벨 래시멧이라는 농부가 기르는 젓소들은 유전자 변형을 한 옥수수과 보통 옥수수를 다른 여물통에 담아서 주면 보통 옥수수를 가려서 먹어치운다.”

---

10) 권영근 기자, <http://www.agri-korea.org/>,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기사; GMO는 과연 안전한가 중에서

농부들에 따르면, 유기농으로 곡물을 재배하는 밭을 습격하는 너구리는 있어도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밭을 습격하는 너구리는 없었으며, 또 다른 농부는 사슴 마흔 마리가 자신의 콩밭에서 콩을 먹어 치웠는데, 길 건너에 있는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콩(GMO콩)을 기르는 밭에서 콩을 따 먹는 사슴은 한 마리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자연세계에서 본능적으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에 의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유전자 변종 농축산물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sup>11)</sup>

## ② 생명관의 변천과 미술

우리 인류는 약 4백만년 전에 유인원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래 수렵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산업사회를 거쳐 이제 21세기에는 생명공학과 정보화의 사회로 진입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인류문명의 발달은 주로 물리학 및 화학에 그 기초를 두어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얼마나 더 오래, 그리고 얼마나 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90년대 이후 미술은 인간에 관한 주제를 넘어서, 인간들을 둘러싼 유기적 환경, 생태와 자연에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생태계의 부조화에 의한 생명과 존재의 위기를 절감하기 시작한 후 더욱 가시화되었으며 자연을 소외시키고 무분별하게 파헤치는 서구의 인간중심주의 및 도구적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부조화의 원인인자를 찾았고 인간을 만물의 중심에 두고 자연을 타자화시키는 서구의 나르시즘적인 세계관에서 인간과 자연의 향소의존성을 강조하는 동양적이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사고의 틀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

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3711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37110) 오마이뉴스 '희망이 밥상' 책 요약편

현대의 생명에 대한 인공적인 조작은 생명, 생물체를 하나의 자동 제어계로 보는 기계론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명기계론은 17-18세기의 데카르트, 라 메트리적 기계론의 단계를 지나 19-20세기의 환원론적 기계론, 현대의 생명 기계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의 생명관은 생명 현상을 물질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볼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산업 혁명을 통하여 자연은 테크놀러지의 횡포 앞에 속수무책인 채로 던져지게 되었다.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 인류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sup>12)</sup> 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강령에서처럼 과학은 권력인 동시에 구원의 방편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의 완전한 정복을 통한 유토피아 ‘뉴아틀란티스’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환경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21세기가 펼쳐진 시점에서 기계문명이 가져다 준 미래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함께 많은 문제점도 함께 가져다 주었다.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에 의한 생명조작기술, 생명복제와 인간복제 기술로 인해서 생명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즉 생명과 인간의 운명이 기술공학에 의해 결정된다는 엽기적인 과학혁명이 그것이다. 생명공학에 의해서 생명과 인간의 존재가 특정한 인간의 이익과 관심을 위해서 조작되는 지금 인간과 생명의 존재자체는 물론 창조주의 위상에 큰 혼란과 혼돈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그 위험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비하여 우월한 존재가 아니며 생명 공동체에서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인간은 환경의 일부일 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비 생명체가 복잡한 인연론적 연쇄를 맺고 있고, 자연계의 모든 것은 끝없이 순환운동을 펼치며, 자연계의 균형과 자기 보정 체계

---

12)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서울 ; 예경, 2000, p.55

는 인위적 변화에 의해 교란되고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생태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조작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보화, 세계화의 달라진 시대구도 속에서 예술 역시 커다란 변혁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후기 현대미술,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모더니즘의 ‘자율성’과 ‘동일성’을 포기하는 대신 ‘자연(nature)’과 ‘흔적(trace)’을 수행하는 해체주의 미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미술이 ‘사물자체(object)’에 관심을 갖게 되는 미니멀아트(Minimal Art)의 구심적(求心的)구조로 규정지을 때, 원심적(原審的)구조의 특성을 갖게 되는 해체주의 미술의 주된 관심은 ‘자연’에 있게 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우리는 ‘자연으로의 귀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시미술에서의 자연환경은 ‘자연의 극복’을 위한 대상으로부터 출발되었다면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자연환경은 ‘자연으로의 귀환’을 위한 대상으로 출발된 것이다. 결국 감수성을 표현의지의 특성으로 삼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는 ‘생태학적 감성의 표현’으로 귀결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이 사회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발전해 왔다면 현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태를 포함한 시대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삶을 위한 삶속에서 미술활동을 통해 이를 정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작품의 제작 동기 및 주제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발달해 온 현대사회는 자연을 타자화(他者化)한

결과, 그 피해가 지구의 모든 생태계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경제 발전을 포함한 국가, 사회의 모든 발전이 생명을 고양시키는 문화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역동성과 생명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사실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을 감싸주는 자연의 소중한 혜택이다. 칸트(I.Kant)는 예술가란 자연의 영감에 의하여 예술에 규칙을 주는 선천적인 심적(心的) 소질을 가진자<sup>13)</sup> 라고 주장 하였다. 본인은 자연을 통해 외적인 모방에서부터, 직관을 담아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작업으로 표현하였고, 생명의 본질과 소중함을 깨달아 이를 예술로 탄생시키고자하였다.

‘인간 스스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자동제어론적 기계론 생명관이 아닌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비하여 우월한 존재가 아니며 생명 공동체에서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작품 활동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공학에 따른 정체성 상실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문명의 발달 속에 살아가면서 현실적 상황을 방관적 자세로 있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의식 반영, 개입해야 한다는 의식과 소명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제 자연 및 사회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변화 및 의식의 전환을 예술창작의 의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근대 산업문명의 폐해로 오염되어진 삶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자연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작품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 ① 자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자연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

13) 버질 C. 울드리치. (1968) 김문환 역. 「예술철학」, (서울;현암사 1981), p.81,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독특한 미는 예술 활동의 소재로써 이미 폭넓게 선택되어져 왔다.

자연은 완전하고 아름답게 보여 지는 미(美)뿐만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더불어 삶의 법칙, 존재의 법칙을 깨닫게 해준다.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대상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예술의 목적은 미의 창조이며 미를 생산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본인은 이러한 미의 소재나 원리를 자연에서 찾았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성을 표현해왔으며 자연은 끊임없이 그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예술은 자연의 이상화이며 예술가가 조형적 형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이상의 표현이다.

자연의 미는 생명의 내부에 깃든 풍부한 생명력과 빛나는 활력에 있으며 생명의 미는 조화된 창조에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미는 그 내부에 내재된 생명력의 소산이고, 그 자신의 존재 규율이며, 그 상징이 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자연을 소재로 한 작업과정 속에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인간과의 연관성으로 이어지는 필연성을 발견하였다.

사회를 떠나 개인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술 또한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람직한 회화의 주제는 화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서적이고도 지적인 관심거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sup>14)</sup>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생의 의미와 인간조건 및 인간에게 어울리는 현 존재의 가치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자 내용이다.”<sup>15)</sup> 라는 아놀드 하우스(Arnold Hauser)의 말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예술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14) M. Grocpeer, 「화가와 그의 눈」, 오병남, 신선주 역, 서광사, 1987, p.159

15) A.House, 「예술사의 철학」, 화잇우 역, 들베게, 1983, p.86

자연파괴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이 사회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 또한 개인의 문제로 직결되며, 본인의 작업 속에서 자연은 생명이고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힘을 의미한다.

## ② 열매의 상징

예술은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을 자양분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된 예술로서의 승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것은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삶의 문제들이 표현하고자하는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일치되어야 하고,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형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본인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생명과, 자연 그리고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먹을거리 중 자연을 소재로 열매의 단면을 시각화하며 21세기 생명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중 유전자변형농산물 제 1호인 토마토를 중심으로 작업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토마토는 본인의 몸을 이루는 영양공급원이며, 자연이고, 생명을 상징<sup>16)</sup>한다.

본인은 생명에 대해 자연을 심리적으로 구성과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열매의 단면을 통해 ‘생명성’ 상징이라는 표현수단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예술 속에서의 상징은 객관적 관찰보다는 형상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또는 내면, 관념 등을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예술에 있어서의 상징은 의미를 수반한다는 것이고, 본인의 작품 속에서 의미로서의 상징이란 열매의 단면을 통한 생명의 형상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인의 작품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생명성 상실과 변형으로 본인의

---

16)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심상이나 사물을 통해 암시하는 일. 또는 그 사물이나 심상. \_우리말 사전

심리변화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이를 형상화하여 회화언어로 표현한 결과물인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 열매는 자연이며 생명의 상징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미지다. 이 이미지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닌 확대, 변형한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본인은 이러한 추상적인 작품을 통하여 더 큰 심적인 감동을 주고자 하였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사물들은 본인의 작업에서 함축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칼 융(Carl Jung, 1875~1961)은 상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말이나 이미지는 그것이 명백하고 직접적인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을 때 상징적인 것이다. 그것은 보다 넓은 ‘무의식’의 측면을 갖고 있고 그 측면은 결코 정확한 정의를 내리거나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sup>17)</sup> 고 하였다. 그 말은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의미라 생각된다.

본인의 작품속의 상징은 직접 드러나기도 하지만 감출 수 있기에 그 의미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부풀려지고 다른 모양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에서 이미지를 차용하게 되고 이때의 이미지는 단순히 사물의 재현적 모방이 아닌 개인의 특별한 감정을 내포하는 상징을 표현한 것이다. 생명성에 대해 위에 언급한 토마토의 단면과 본인의 삶과 가까이 한 ‘콩’, 그리고 그밖에 과일과 채소를 차용하였지만 이는 재현적 모방이 아닌 본인의 감정에 따라 이미지를 확대, 흐리게 하고 색을 바꾸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열매로 표현하였다. 이는 본인의 내적 경험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흔적들을 형태변형과 색채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

17) 사토루 후지, 「미와 조형의 심리학」, 김복영 옮김, 서울: 조형사, 1994, p.189

## 2. 조형적 분석

### 1) 이미지 확대와 변형

조형적 표현에 있어 형상의 확대나 변형은 단지 어떤 사실을 재현이나 설명에 머무르기 보다는 좀 더 함축적으로 읽혀지기를 원한다. 본인의 작품은 확대되거나 색채변형등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형상들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간접적 제시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보는 이로 하여금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 써 오히려 그 내용이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하우스는 감동을 주는 작품에 있어, 하나의 현상으로 모호성이 강한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제작 의도 전달이 강한 것 중, 상징적 내용이 강한 것, 즉 함축적인 추상성과 복잡성을 띤 것이 전달 의미가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소재로 등장하는 열매의 이미지는 확대되어 실제 크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크다. 열매의 단면을 확대하여 들여다봄은 그 안에 우리가 인식 할 수 없었던 유기적 형태들과 생명이라는 한층의 숨결을 감지할 수 있지만 사물을 가까이 보는 근접시각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과는 달리 대상을 주위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다. 본인의 작품은 지나치게 둔감해져버린 생명의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시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의 형태가 변형되고 색채가 원래의 사물과 다르게 주관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는 본인의 인식에 의해 작품에서 작품으로 이미지가 확대된 것처럼 이미지는 추상화 되어지기도 하며, 표현방법에 따라 이미지를 흐려 다른 이미지로 형상화 되기도 한다.

우리의 시각은 부정확하고 믿을만한 것이 못되며, 또한 자연도 불완전하고 정립할 수 없는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연을 정확한 하나의 모습으로 포착할 수가 없고 어떤 이미지로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작품 12] ‘blood’에서 보면 굴의 이미지가 핏줄의 이미지로 변경되어 보인다. 변형이란 대상으로부터 얻어진 특징적인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표현요소를 고의적으로 강조 또는 생략하거나 확대, 축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화면구성에 있어서 변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모티브의 특징적인 사실성을 부가하여 변형하는 방법, 부분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모티브의 특성상 직선적인 성격이 강한 기하학적 형태를 곡선화하거나 각도를 주어 변형하는 방법, 또는 이러한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변형하는 방법 등이 있다.<sup>18)</sup>

형태는 우리의 사고의 시초이고 감각을 재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창조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의 이미지에 대한 내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주관적 개입은 상상력과 감정을 통하여 형을 끊임없이 변형해 가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표현에는 변형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예술가의 직관을 통한 개성적인 변형이 수반된다.

변형은 화면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본인의 표현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며 내용의 전달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극대화시키는 표현 기법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변형의 효과적 기능성을 감지하고 활용함으로써 본인은 감정을 집약하여 표현시킬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었다.

---

18) 왕상원, 「축적된 시간, 물질화된 공간」, 이화여대 서양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2) 색채변화와 시리즈

‘색채는 형태처럼 공간의 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이다. 색채는 사고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직접적으로 화가의 본성을 반영해 준다.’<sup>19)</sup> 이는 색채가 화가의 감정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잘 반영해 주는지를 알 수 있다. 색채는 작품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조형의 한 요소로서 감정의 언어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마음의 심층까지 자극하는 상징 언어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색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공감, 반감, 즐거움, 불만 등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는 매우 중요하다.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색채가 주는 비중은 더욱 크다. 또한, 본인의 작업에서 색채는 형태보다 더욱 자율적이며, 실제적인 색채에 얽매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변형된 색은 본래의 열매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생명적 존재로 표현되며, 본인은 변형된 색채로 인해 화면을 신비로운 분위기로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는 낯설면서도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시선을 집중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작품 10] tomato는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colorful한 GMO tomato다. 그중 본인은 blue tomato 에 애착을 느낀다. Blue 는 식욕을 억제하는 색이라고 한다. 우리는 처음 먹는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접하기 힘든 색상에 대해 약간의 거부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지 않아 생기는 거부감이지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더 큰 관심과 흥미를 느끼며, 매력적이라고 까지 느낀다. 그리고 더 많이 선호하여 먹기에 이른다. 그 예로 파워에이드 음료를 들 수 있다. 파워에이드는 진한 파랑색을 띠는 음료로 기존에 투명하거나 약간의 색을 가미한 음료에 익숙했던 사람들로 부터 약간의 거부반응을

---

19)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 김화영 역, 서울: 열화당, 1979, p.188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고, 갈등해소에 효과적인 이미지로 성공한 사례가 되었다. 본인은 빨간색의 과일만큼이나 맛있어 보이는 보라와, 자주색의 토마토를 만들면서 본인의 취향과 선택에 맞게 색을 조작하였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로 농산물을 조작한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

색채는 형태와 융화되어 무한한 조화를 이루어내며 색을 통하여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 화면의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색채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감각언어라 할 수 있다.

데이빗 카츠는 색과 형에 관해 ‘색채는 형태보다 감정에 훨씬 밀접하게 관련되며 형태가 단순할수록 그 결부는 더욱 긴밀해진다’고 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색채 표현에만 목적을 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태를 형식으로 취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발휘하기 위해 색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형태를 단순화시킴으로서 의미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색채는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울리는 호소력을 갖는다. 색들은 자연을 추상화시킨 반영이며, 자연적인 것 속에 있는 인위적인 것, 다시 말해 형상들이다. 색들의 형상과 의미란 개념에 의해 고착되어 사라지기 직전의 이미지들의 흐름이고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동, 인상, 기억으로서의 의미이다.<sup>20)</sup>

이렇게 색은 현실에서의 감정과 시각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인은 주로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파스텔톤의 작업도 있지만 이 또한 부드럽고, 잔잔한 분위기는 아니다. 여러 색면의 캔버스를 한 작품으로 만든 [작품 10]는 화려함과 유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여 메시지 전달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여준다.

---

20) Manlio, Brusatin, 「색,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이수균 역, 미진사, 1996, p.7

본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작업한 시리즈 작품들이 많은데 여기서 반복 (Repetition)이란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 형태와 형태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해 동일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sup>21)</sup> 이렇듯 반복은 동일한 요소와 대상이 둘 이상 배열되어 사용되고 나타나면서 연속적인 리듬의 변화가 스며드는 것이다. 또한 같은 형식의 구성 동일한 요소나 대상 등을 배열시켜 시선을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일한 느낌을 줌으로서 율동감을 준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통일감을 주어 강한 메시지를 건낼 수 있다.

반복은 디자인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쉽게 사용되는 단순한 방법인 만큼 우리에게 친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해온 이미지의 반복효과로 친숙하지만 이색적인 이미지를 건내어 인위적인 생명의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본인에게 주관적인 색채는 생명력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과 인간의 이기로 인한 인공적인 생명을 반영하는 하나의 표현수단이다.

### 3) 기법표현

생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체의 변화를 희망하는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까지 움직여 나가는 존재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면 이미지를 포착하듯 뚜렷하게 그리기보다는 붓으로 이미지를 흐려 순간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기법은 모호하며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직접적인 의미전달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흔들리는 이미지는 평면위에 진동하듯 대상을 가늠할 수 없는 동시에 형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수록 묘사된 이미지는 사라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

21)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34

뚜렷한 대상, 응시를 찾으려 한다면 더욱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작품이 이끄는 혼돈은 스스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맞서는 본인의 불안과 혼돈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하고 부정확하며 확대되고, 생략된 형태를 사용하며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대상의 구체적인 형태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이는 작품의 이미지만이 아닌 작가의 내면을 바라보는 관점의 불안정성과 부정성을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모호하고 부정확함은 현시대의 갈등과 본질에 대한 불확정적, 불확실성의 수용에 대한 내면의 심상을 의미함으로 모호함은 긴장감이 도는 이중적이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예술은 화면의 단순한 형상이나 이미지를 그리는 바탕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자체의 회화적 표현으로 감성적 역할을 하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우연적인 것과 의도적인 것, 감성적인 것과 지적인 표현기법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풍부한 변화를 주고 화면의 다각적 효과를 보여주어 전달하고자 하는 21세기 생명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였다.

### 3. 작품 분석



[작품 1]



[작품 2]

[작품 1] No title, 73 × 91cm, Oil on canvas, 2003

[작품 2] No title, 73 × 91cm, Oil on canvas, 2003

[작품 1] No title

[작품 2] No title

식물의 열매와 꽃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품고 있다. 외적으로 이는 매우 작고 미미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이는 다음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 첫 단계로 그 내면에서는 왕성하게 자라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씨앗의 기다림을 느낄 수 있다.

[작품 1]과 [작품 2]는 동일한 주제로 제작된 작품으로 이미지만 다를 뿐 의미와 구도 등 색감까지도 모두 유사한 시리즈 작품이다.

조형적으로 보았을 때 [작품 1]의 이미지는 꽃의 단면으로 상단에 강렬한 진초록색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이는 자연적인 외부 공간과의 차단을 의미하며 우리가 접하는 꽃이 자연생태의 꽃이 아닌 유전자 조작을 한 인위적인 꽃임을 의미한다. 타원형의 꽃 안에서는 새로운 성체(成體)인 씨앗이 보호받고 있으며, 이 생명은 탄생을 기다리는 씨앗으로 정적이기 보단 동적인 느낌으로 분산되어 율동적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꽃씨 위에는 회색빛의 뿌연 막이 덮여 있다. 이는 다음 생을 탄생시킬 수 있는 씨앗이 아닌 무늬만 씨앗인 일회용 꽃임을 암시한다. 겉으로 보기에 자연생태적인 꽃과 같아 보이고, 혹은 더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이지만 씨앗은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작품 2]는 과의 씨 단면의 모습으로 씨앗과 씨방, 그리고 외피로 나누어져 있다. 씨앗과 외피 사이에는 씨방이 존재하며, 이 씨방은 일종의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씨앗을 보호한다. 색감도 그린과 옐로우로 따뜻한 자연의 색이다. 하지만 배경부분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검붉은 색이 가라앉아 있다. 붉은색은 유희의 색감으로 화려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검붉은 색이 감돌며 이는 음산하고 암울하다. 씨앗 안쪽에는 씨를 품고 있는데 씨의 색들이 노랑과 붉은색 등 유동적이고 활발해 보이는 반면 그 위에는 회색으로 한겹 덮여 있다. 회색

은 무채색이며 무생명을 의미하고 이는 인간의 조작으로 인한 생명의 Originality 파괴를 의미한다.

[작품 1] 과 [작품 2] 모두 자연의 한 단면을 묘사한 작품으로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여 지지만, 두 작품 모두 씨앗부분엔 회색의 뿌연 막이 덮여 있듯 21세기 생명의 존엄성 상실과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작품이다.



[작품 3] Super bean, 145.5 × 112cm, Oil on canvas, 2004

### [작품 3] Super bean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자연 상태에선 생길 수 없는 새로운 생물을 창조하고 있다. 홉킨스 림프종(Hodgkin's lymphoma-HL) 치료법 개발을 위해 유전자 변형을 한 담배를 재배하고, 치즈 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젓소를 만들었다.<sup>22)</sup>

이러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중 대표식품이 바로 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콩을 이용한 식품은 매우 많다. 주식인 밥도 콩밥으로 먹고, 발효한 된장이나 두부를 이용한 반찬과 콩국수 등 가공음료인 두유종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닐 만큼 즐겨 먹는다. 이렇게 콩의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많은 양을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은 수입 콩의 3분의 1정도가 유전자가 변형된 GMO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콩의 씨앗을 역으로 수입하여 GMO콩으로 재배하며, 이는 그 재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농작물 지역에까지 큰 악영향을 준다. 이를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섭취하여 왔다. 본인 또한 어렸을 적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콩밥과 함께 콩이 들어간 음식을 즐겨 섭취하였다. 따라서 콩에 대한 인식도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작품 3]은 여러 가지 콩들이 실제보다 큰 이미지로 화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안에서는 싹을 틔운 콩도 있고, 껍질에 쌓여 있는 콩도 있다. 이들은 어떤 것이 변형된 것인지 우리의 시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그중 화면 중심에 자리잡은 수퍼콩은 비대하게 큼으로 이는 먹고 싶은 콩이기 보단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이질감을 준다.

[작품 3]은 이러한 근원을 알 수 없는 콩이 맑지 않고 어두운 검은 물에 반쯤 잠겨 있다. 이 물은 예측 불가능한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생명공학의 물로 우리가 접하는 콩(씨앗)이 생명공학의 물질 안에 잠겨 있음을 의미한다.

---

22) [www.alric.org](http://www.alric.org) : 농생명과학 연구정보센터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작품 4] **into**, 53 × 45cm, Oil on canvas, 2004

[작품 5] **lift**, 53 × 45cm, Oil on canvas, 2004

[작품 6] **carry**, 53 × 45cm, Oil on canvas, 2004

[작품 7] **overpowered**, 162 × 112cm, Oil on canvas, 2004

[작품 4] into

[작품 5] lift

[작품 6] carry

[작품 7] overpowered

오늘날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의 파괴,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이것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수질오염과 화학물질의 과다사용, 열대 우림의 파괴와 사막화 현상 등은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위기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는 그 규모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국가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본인 작업의 주제로서 생명성 상실의 문제라든가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다음 세대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작업이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연파괴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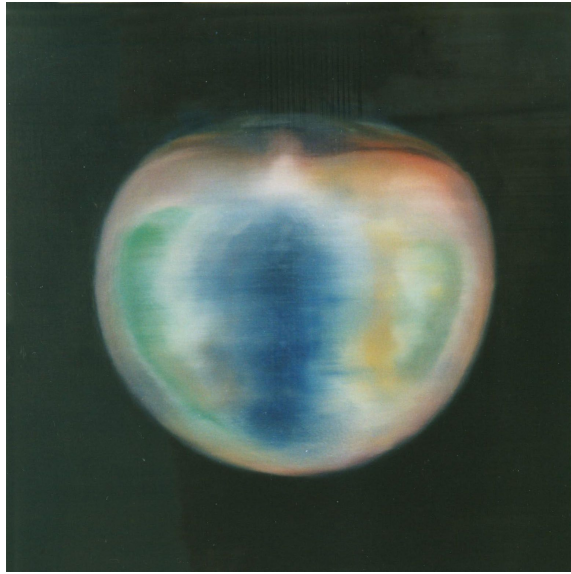
[작품 4~7]은 토마토를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생태파괴의 상징으로 보고, 이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토마토가 아닌 인간에 비해 비대하게 커져버린 토마토로 심적으로 거대하게 다가오는 21세기 자연이다.

소주제로 등장하는 대상인 인물은 작가 본인으로 이는 본인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 중 한사람임을 대변하고 있다. 절단된 토마토의 단면은 그 속살을 드러내고, [작품 4]은 인간이 그 안으로 파헤치고 들어가려 한다. 여기서의 인간은 평범한 현시대의 인물이 아닌 생명공학의 발달을 연구하는 과학의 손길로 안으로 파헤쳐 들어감은 생명의 원리를 파헤치는 인간의 접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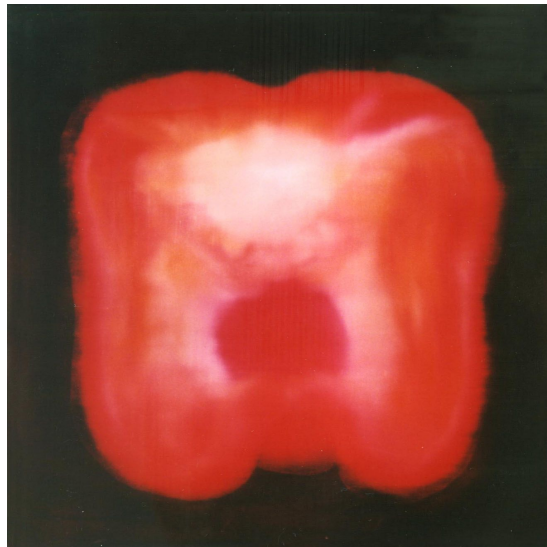
[작품 5]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생명공학의 부작용을 작은 인간이 힘겹게 떠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결국 버겁게 커져버린 자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작품 6]또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임을 보여준다.

[작품 7]도 자연의 재앙에 위 아래로 눌러 두 생성의 충돌을 막듯 생명공학의 부작용을 막고 있는 모습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약하고 작은 인간이 자연 앞에 인간이 자연 우위에 존재함이 아닌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인 점을 알려준다.

[작품 4~7]에서는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의 자연 생태계의 문제점을 희극적으로 연출하여 보여줌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8]



[작품 9]

[작품 8] Blue tomato, 122 × 122cm, Oil on canvas, 2004

[작품 9] a green pepper, 53 × 46cm, Oil on canvas, 2004

[작품 8] Blue tomato

[작품 9] a green pepper

[작품 8]와 [작품 9]은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작품 10] 전단계 작품이다. [작품 8]와 [작품 9]은 화면이 이미지와 배경으로 분리되어있는데 짙은 배경은 우주적 공간으로 생명의 공간이며, 그 안에는 생명의 흐름과 역동성이 잔잔하게 일어난다. 또렷하지 않고 스치듯 모호한 이미지는 생명이 흩어지고 탄생되고 있는 생의 흔적으로 펼쳐짐, 움직임, 긴장감 등의 비정형적 형태 및 행위의 표현이며 이는 생명감 있는 자연의 고유성을 나태내주는 유기적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 공간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품고 있는 형태로 비정형의 움직임을 내포하고,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에 화면의 변화는 생명의 신비감을 더해준다.

[작품 8]와 [작품 9]은 토마토와 피망의 단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보고 작업한 것으로 열매의 단면을 재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를 묘사한 후 붓 터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사라지게 함은 묘사 하였다기 보단 초점없는 모호한 이미지로서 유기체의 이미지를 재현함에 있어 모방의 이미지가 아닌 그 자체로 살아서 꿈틀거리며, 감성에 의하여 또 다른 하나의 자연으로 이행된 회화성 열매의 단면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유기체의 생동하는 생명에 대한 주관적감성을 표상화 함으로서 열매에 함축되어 있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통하여, 내면의 생명성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이 두 작품은 자연 속에서 투영된 우리 삶의 내면세계를 나태내 보고자 한 것으로 본인은 자연에 대한 외경심으로 작업하였다. 그로 인한 이미지들은 내적 울림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곧 본인의 정신임과 동시에 마음이며 모든 것이 종합되어 표현되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탕에 여백을 줌으로써 자연의 유동적인 감각의 표출과 개방된 화면 공간의 모색으로 정적인 분위기의 화면과 긴장감속에 운동감을 주어 생명의 근원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10] Tomato, 상단 각 122 × 122cm, Oil on canvas, 2005  
하단 각 120 × 120cm, Oil on canvas, 2007

## [작품 10] Tomato

[작품 10]는 열매 단면의 색을 인위적으로 바꿈으로 하나의 토마토 이미지 단면을形形色색의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다. 이는 실제 토마토 단면의 이미지보다 더욱 강렬하고 유혹적이다.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식품을 선호하는 현대인을 대변하여 본인은 토마토의 단면 색상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blue, green, purple, violit의 토마토로 만들었다.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작품은 위험하고 불안한 작가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역설(Paradox)은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로,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sup>23)</sup>

본인은 작가란 현실을 옹호하기 보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10]는 21세기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그림을 보면 열매의 단면을 색상만 바꿔 그린 것은 아니다. 명확하지 않고 스킷 듯 흐려 초점 또한 맞지 않다. 흔들리는 이미지는 그로테스크한 대상들의 속사정은 뒤로하고 현란한 색채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현실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는 혼돈의 경계에서 진정한 original의 진실을 알아채기도 전에 흔들리는 blue와 green, purple, violit 색채는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다. 크기도 실제에 비해 크게 확대시켜 이미지만 보면 무엇인지 조차 알기 힘들다. 본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이 시대의 모습, 불확실한 미래와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현주소를 초점 없는 모호한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Colorful 한 열매의 단면에서는 탐스러운 열매(생명)의 본질을 파헤치듯 확대해 보지만 그럴수록 알아보는 더욱 더 힘들어진다.

---

23) <http://krdic.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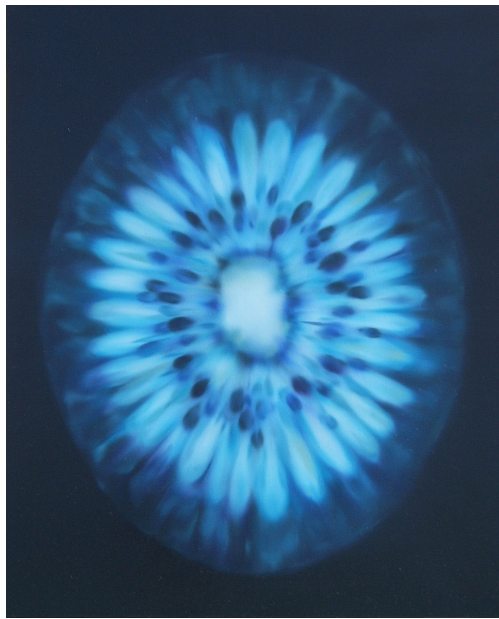
Tomato 시리즈는 정사각형의 틀로 시선을 주목시키지만 초점은 어디에도 없다. 색상만 펼쳐져 있을뿐 어떠한 선명한 이미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찾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도를 넘어 이미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젖어 진정한 아름다움에서 멀어져만 가듯 우리의 눈도 멀어져 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을 보면 정사각형의 프레임이 특징인데 이는 유전자 변형 토마토의 단면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매우 작은 하나의 Pixel 일 뿐이라는 걸 말해준다. 세상에는 이 Pixel이 수천~수만 개 모여 있다. 2008년 5월 ‘꿈꾸는 열매전’(참고사진 1)에서 캔버스 4개를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되었다. 여기서 pixel은 유전자 변형된 세포를 의미한다.

[작품 10]에서 상단에 작품 2점은 2005년에 하단의 작품 2점은 2007년에 제작한 것으로 4개의 캔버스를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한 것은 (참고사진 1)에서처럼 관람자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화면을 크게 함으로써, 유전자를 조작하였든 하지 않았든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고 나약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우리의 선부른 판단으로 인하여 되돌아올 위협감도 같이 느끼게 하려 함이다.

이미 Original 이란 수 만년의 진화로 존재조차 하지 않을지 모른다. 물론 지금의 현상이 진화가 아닌 개량이란 점이 문제인 듯 하지만 말이다. 겉모습은 유기농과 같지만 그 안은 천지차이 라는 것이 사회와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GMO 를 반대함에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에 의한 반대이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접근을 하였고,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를 작업화 하였음을 언급해 두고싶다. 이미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몸 안에 깊이 들어온 GMO ‘tomato’를 통해 생명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작품 11] A fluorescent kiwi, 각 73 × 90cm, Oil on canvas, 2007

## [작품 11] A fluorescent kiwi

생명공학은 인간의 치료목적 하에 형광질환 복제 마우스(참고사진 2)나 형광 고양이(참고사진 3)등 유전자 조작 동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12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자외선을 받으면 붉은 색을 내는 적색 형광 고양이(참고사진 3) 생산에 성공했다. 유전자 조작과 체세포복제 기술을 이용해 자외선을 받으면 붉은 빛을 내는 형질전환 복제고양이를 생산한 것이다. 고양이의 피부세포에 붉은 빛을 내는 형광단백질(RFP) 유전자를 삽입한 뒤 이 세포를 핵을 제거한 난자에 주입해 적색 형광단백질이 발현되는 형질전환 복제 고양이를 생산해 냈다. 형질전환 복제고양이 생산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고양이의 다양한 유전질환 치료연구와 인간 질환모델 동물을 복제 생산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향후 신약개발 및 세포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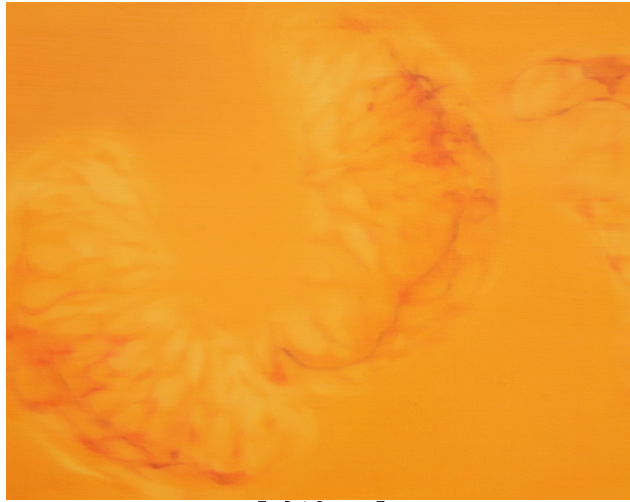
유전자 조작은 비단 동물뿐만이 아니다. 백신 역할을 하는 바나나와 토마토, 향암 작용 및 진통 성분을 가지는 작물 개발도 한창이다. <sup>25)</sup>

이들이 공통점은 식물과 동물을 활용해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과학의 진보라 할 수 있는 생명공학의 현실 속에서 본인은 [작품 11]을 구성하였다. 검은 바탕 중심에는 강렬한 green, blue, red의 'fluorescent kiwi'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사로잡고 안으로 끌어당긴다. 이 작품 역시 단일 작품이 아닌 시리즈로 작품을 반복적으로 색상만 바꿔 작업함으로써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경고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 과일은 결코 먹고 싶어지지 않는 존재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소리 없는 경고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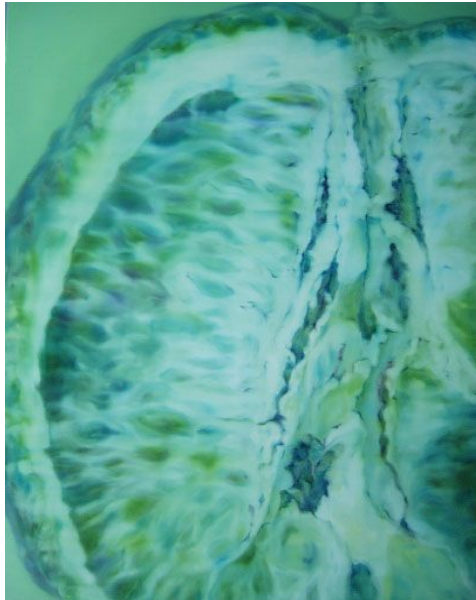
---

24) 김리선 기자, 시티신문, 2007년 12월 12일

25) [www.lgeri.com/top/](http://www.lgeri.com/top/) LG 경제 연구소 홈페이지



[작품 12]



[작품 13]

[작품 12] blood, 73 × 60cm, Oil on canvas, 2008

[작품 13] Emerald Green Orange, 91 × 116.5cm, Oil on canvas, 2005

[작품 12] blood

[작품 13] Emerald Green Orange

유전자 복제 및 조작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 왔다. 미국에서는 이미 맞춤형아기를 갖기 위해 예약이 줄을 이은 상태다. 외형적으로는 일반 인간과 다름없지만 이 모든 게 인간의 조작으로 만들어 진다.

[작품 12]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이루고 있는 피를 오렌지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이 오렌지는 강렬한 노랑을 띄고 있으며, 화려하고 인간의 눈을 현혹시키며 매력적이다. 하지만 강렬한 색상은 매력적인 동시에 인공적이고 위험한 기운을 내비치고 있다. 바탕과 사물의 경계가 모호하여 비어있으면서도 비어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탕은 사물과 하나처럼 보인다. 이는 생명체가 독립적이지 않고 동물이나 식물, 인간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상호의존적이며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명한 외곽선이 아닌 흐릿해 보이는 피사체는 다 사라지지 못해 최소한의 단서만을 남긴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채 낯선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 처음과 끝, 탄생과 죽음 같은 경계가 사려져 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품 13]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Emerald Green Orange’로 Orange의 색을 Emerald Green으로 바꾸었다. Orange는 과일이면서 색상의 고유명사다. Emerald Green 또한 색상 표에 나오는 고유명사로 Emerald Green Orange는 우리가 정해 놓은 색상표의 고유명사 또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 혼돈에 빠짐을 보여준다. 이는 생명성 상실이 인간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더불어 우리가 믿어왔던 수많은 사실인 오랜 세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화와 사상, 고유의 Originality 까지 모두 혼란에 빠트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의 공존을 위해 생명윤리, 의학 윤리, 정치 윤리, 환경윤리, 기술 윤리 등 모든 분야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품 14] festival of the extinction, 97 × 130cm, Oil on canvas, 2008

## [작품 14] festival of the extinction

동식물이든 사람이든 탄생과 소멸을 거듭하며 진화한다. 이는 생명의 순환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形形色색의 장미꽃들을 보며 행복해 하고 있지만 이 모두 조작으로 인해 한 세대만을 꽃 피우고 다음 해에는 자랄 수 없는 일회용 식물일 뿐이다. 생태계의 불임 현상이 다가온 것이다. 우리에게 유토피아(Utopia)를 안겨 주리라던 과학기술은 약속한대로 상상할 수 없는 편의와 이기(利器)를 가져다주었지만, 놀라운 진보의 이면에는 수많은 부작용 또한 양산되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치명적인 과학 기술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수많은 사실들 역시 자취를 감추어갈 것이다. [작품 14] ‘festival of the extinction’는 이를 역설적으로 표한한 작품이다. 탄생을 축복하기엔 어두운 미래를 무시할 수 없다. 제목에서도 보여주듯 우리는 현재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닌 original 생명의 소멸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배경색에 비해 화려한 내부는 이제 아름답다기보단 도를 넘어서 광기가 느껴지듯 음산하기까지 하다.

[작품 14]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동시에 생성되는 유전공학의 양면성을 내재하고 21세기의 생명성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 Ⅲ. 결 론

지금 지구상의 인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발달된 과학으로 생태파괴와 생명 위기의 혼돈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현실 속에 우리들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며, ‘생명성’ 과 ‘생명력’ 을 지켜야 한다. 생명현상에서 나타나는 ‘생명성’과 ‘생명력’에 대한 관심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술도 예외는 아니다. 본인은 21세기 생명과 정체성을 삶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작업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환경문제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을 모토로 발전 개발되고 있다. 이는 동서양 모두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깨달은 것이다. 본인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문화, 세계라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21세기 생명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자연 속에서 열매의 단면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실제 열매의 단면을 재현이 아닌 본인의 심상이 가미된 유전자 변형 열매의 단면으로 표현함으로써 생명력에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합쳐져 하나의 힘을 이루듯 생명경외사상의 본질탐구에 기초를 두고, 생명력의 큰 범주 속에서 항상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유동적인 이미지를 연구하여 이를 조형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하여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작한 본인의 작품들을 되돌아보며,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화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 또한 모색할 수 있었다.

본인은 본인 작업의 문제점으로 한정된 화면구성과 조형적으로 심리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 의미전달이 약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본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소재를 열매의 단면으로 한정짓기 보다는 직접적인 자연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이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더 적합한 소재를 찾아보고,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문자나, 설치(display)를 이용하여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겠다. 회화적으로는 주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색감과 밀도에 있어서 깊이를 주어 긴장감을 더해주고, 그밖에도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화면구성과,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발전시키면서 내면의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고 극대화 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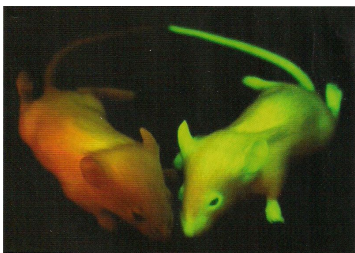
본인은 이러한 시점에서 본인의 예술이 큰 영향력은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문명의 폐해로 오염되어진 삶의 본질을 회복하고 자연과 생명의 근원을 이해하며, 양자가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 생각하였고 이에 작품을 통하여 재확인 하였다. 또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생명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로 공유되어 있으며 인간은 자연 안에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 생태계는 생명자체의 환경이므로 부차별적 조작은 인간의 생명조작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인은 앞으로의 '생명성 표현 연구'에 있어서 새롭게 다가오는 환경의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이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 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본 연구가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 일단의 전환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인의 작업에 대한 새로운 작품 전달 방법을 찾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참 고 사 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1) <전시장 실내 사진>, 가나아트스페이스 3층 ‘꿈꾸는 열매展’,  
2008년 5월 7~13일

(사진 2) <형질전환 형광 마우스>, 생명과학 체험 특별전 ‘바이오 오디세이’  
전시에서 자외선에 노출시켰을 때의 형질전환 형광 마우스 사진

(사진 3) <a> 적색형광유전자를 가진 고양이 사진, <a’> a에 자외선을 쬐인  
고양이 사진. 오춘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2007. 12. 13일자

## 참 고 문 헌

- H.리이드, 1931,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주일 역, 을유출판사, 1969
- 권영근, 「위험한 미래」, 당대, 2000
- 박병상, 「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 책세상, 2002
- Mae-wan ho, 「나쁜 과학」, 이해경 역, 당대, 2005
- 제인구달, 케리 매커보이, 게일 허드슨, 「위대한 밥상」, 김은영 역, 사이언스북, 2006
-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서울, 예경, 2000
- 버질 C. 올드리치. (1968) 김문환 역. 「예술철학」, 서울, 현암사 1981
- M. Grocbeer, 「화가와 그의 눈」, 오병남, 신선주 역, 서광사, 1987
- A.House, 「예술사의 철학」, 화잇우 역, 들베게, 1983
- 사토루 후지, 「미와 조형의 심리학」, 김복영 역, 서울, 조형사, 1994
-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 김화영 역, 서울, 열화당, 1979
- Manlio, Brusatin, 「색,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이수균 역, 미진사, 1996
-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 ABSTRACT

## A study on the pictorial expression of the life

- centering on the author's work -

Lee, hyeon su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rt cannot be sole so that it has related with the human life and realities. Artist has expressed and recreated the harmony and variation of nature related with human life through the way 'Art' continuously. So, my works has begun from grasping the present human identities through 'Nature' relevant to human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lanks like "Nature serves the human as servants" of Francis Bacon, nature has been plunged into the hands of technology throug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 century, while science has been authority and a mean of salvation simultaneously.

These 'Mechanical life view' has influenced the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Through the structure of cell's DNA come out to open, it is possible of DNA to be modified. As a result, GMO is born.

As generic engineering has advance, GMO is common in human life. Among them, a tomato is the first GMO. So, it is used as main material for my works, and the sections of other fruits are utilized. The reason

section than surface utilized i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history of life, such as the evolution history of earth is to grasp through a geologic stratum formatted by the crustal movements.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express both the originality of the life and the absence of originality in modern society by painting the section of fruits, which means the dispensation of nature and the history of biological evolutions.

In this paper, I intended to explicate the meanings of my works specifically and tried to find ways for the development of possibilities and potentialities in modern art.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and the title of thesis is ‘ A study on pictorial expression of the life’.

In the first chapter as an introduction, objectives and approaches for this study are introduced based on the art and the life in the 21st century.

In the second chapter as the main subject,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formative analysis on my works which are achieved by a variety of organization and expression on the sections of living fruits were carried out in detail.

In the content analysis, the motivation and subject of works are preferentially presented. And the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nges of the life and their expression from view point of the art, absent originality of the life in modern society are described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nature’ and ‘the meaning of fruits’ are explained to introduce the validity on the selection of subject matters.

In the formative analysis, 'expansion and changes of images' as well as meanings of 'changes in colors' on my works with brilliant layouts are described in sequence. Also, the symbols appeared through the blurred images are explained in 'expression methods'

Finally, 14 works are described, based on particular contents and formative factors.

In the third chapter as a conclusion, summary of this paper and objective criticisms are described and future plan on my works is mentioned.